|  |  |
| --- | --- |
| **쌍용자동차-2** | **보 도 자 료** |
| 2013년 4월 26일(금) |

|  |
| --- |
| 쌍용자동차, 1분기 매출 7,516억…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
| **▪ 코란도 시리즈 선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판매 18.2%, 매출액 16.7% 증가**  **▪ 제품개선 모델 통해 내수 판매 전년 대비 37% 증가한 업계 최대 성장률 기록**  **▪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영업 및 당기순손실 규모 전년 대비 큰 폭 개선, 경영실적 점차 회복** |
|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가 지난 1분기 ▲내수 13,293대, 수출 17,972대(CKD 포함)를 포함 총 31,265대를 판매해 ▲매출 7,516억 ▲영업손실 174억▲당기순손실 98억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판매는 18.2%, 매출액은 16.7% 증가한 것이며, 영업손실은 43% 감소한 것이다.  1분기 판매 증가는 「코란도 C」는 물론 지난 2월 출시된 「코란도 투리스모」 등 판매 증대에 힘입은 것으로 내수, 수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37%, 7.4% 증가한 1만 3,293대와 1만 7,972대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구매력 위축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도 코란도 시리즈 등 제품개선 모델의 판매 확대를 통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판매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 역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렉스턴 W의 인도 시장 성공적인 진입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 물량은 향후 러시아로의 본격적인 선적과 SUV 라인의 생산물량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종별로는 「코란도 C」와 「코란도 스포츠」 국내외 판매가 각각 1만 2,254대, 7,467대를 기록하며 전체 판매의 63%를 차지하는 등 판매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 2월 출시된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계약대수가 3,800대를 넘어서는 등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판매와 매출 호조세에 따라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 △305억 대비 131억이 감소한 △174억을 기록했으며, 당기 순손실 역시 전년 동기 △316억에서 218억 감소된 △98억을 기록하는 등 손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업계 최대의 내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판매와 매출 모두 증가했으며, 손익실적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며 “이는 전 임직원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코란도 투리스모」 등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를 통해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